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8. 29 ~ 2021. 9. 18 제253호

포토에세이



▲ 코소보 교회에서 만난 아이. 제공: WMM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은 아이들 중,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남자 아이에게 가장 먼저 눈길이 끌린다. 무슨 이야기이길래 저리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을까? 아무도 아이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어 보인다. 오히려 크게 부릅뜨고 있는 아이의 눈빛에서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느껴진다. 이야기 속에

서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것일까? 이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거룩하셨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아들에게로 돌리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 창조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다.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아가 8:6) [GPNEWS]

전직 美고위 관리들… “한국은 아프간 패망에서 교훈 얻어야”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이 주한미군 철수가 우려되고 있는 한국은 아프간 패망에서 큰 교훈을 얻어 한국군이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전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한국과 아프간의 상황이 명확히 다르지만, 한국군은 항상 훈련되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프간 패망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야 ‘훈련을 더 많이 할 것’하고 후회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훈련하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국가방어 수단”이라며 “특히 (병력이 기동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꾸준히 실시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관점에서는 한국군을 신뢰하지 만 그럼에도 훈련을 계속하

고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 아프간 패망을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자칫 북한이 오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나는 한국군의 역량을 베트남에서 직접 봤다.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프간과 다르다.”면서도 “아프간 패망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베트남 패망 때와 같다.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는 국민에게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미군 태평양사령관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미국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미국의 우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 훈련 축소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요청했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 그 반대 상황(바이든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수조 달러를 쓰고, 30만 명이 넘는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하고 현대적 장비를 갖춰줬지만, 아프간 정부가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주장하지만, 최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진행중인 중국의 패권에 대항한 쿼드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채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 또 국내 일부 좌파세력은 종전협정이니 평화협정을 외치면서 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아프간 패망을 교훈삼아 한미동맹을 더욱 굳게 하며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최선의 정책을 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37)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일까요?

후전선의 한 초소에서 우리 군 초소의 병사가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북측에서 무장군인이 두리번거리며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저런 시험을 해보더니 반응이 없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쪽에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놈이 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소의 병사는 지금 숨을 죽이고 정확히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조금만 더 와라... 사정거리 안까지

들어오면 정확하게 사격해 줄 테니 조금만 더 와라...”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기만을 기다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슬쩍슬쩍 죄를 저지르는데도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없

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돌이킬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인은 갈 수 있지만 죄는 천국에 못갑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주셨다.”라며 완전 속죄 교리를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믿기 때문에 더욱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로마서 6:2).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안에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법원, “트랜스젠더 입장을 수강생에게 설득 못한 것, 학원장 잘못”... 황당 판결



▲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해 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 unsplash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법적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미용학원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한 사람의 성적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겨,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이 크다.

국비지원 미용학원 원장인 A씨는 2019년 학생 수강생 B씨에게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원장 A씨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민원이 제기됐고,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진정인(B씨)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B씨와 수강생 간 갈등을)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 같은 결정의 근거인 국가인권위법 제2조(정의)의 3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서 열거한 항목에는 ‘성별정체성’이란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성별정체성’에 대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법 제정 당시 이러한 개념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지 않았다. 당시 입법자들은 ‘성별정체성’ 적용을 생각지 않았을 것인데(실제로 당시 주된 이슈가 아니었다) 입법 의도와 달리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둘째,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대부분의 수강생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화장실 사용을 불편하게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이

유로 그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그의 주장을 ‘합리적인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음’이라는 국가인권위법안의 문구나 차별금지법의 문구는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당시 고발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여자로 성전환이 된 상태도 아니므로 학원장 A씨의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나 인권위나 이상훈 부장판사는 A학원장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가 여자화장실 사용을 하려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하고 있다.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 행위다. 셋째, 현재 국내 법원과 이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문화막시즘적 성향을 가진 법조인들이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국 사회의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을 하는 법조인들은 그동안 인권과 문화를 중시하며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네오막시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에 침투해야 한다는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진지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막시즘이 바라는 유토피아 사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이때 정부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를 위한 정부인지, 출생 당시의 성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의 정부인지 답을 해야 한다. [GPNEWS]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아이티, 지진 사망자 시신 수습도 못해... 폭풍 그레이스 예보도

규모 7.2의 강진이 강타한 아이티에서 17일(현지시간) 기준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숨지고 부상자가 1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시신 수습은커녕 의료 물자 부족으로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길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한편,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까지 덮쳐 돌발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기상 당국이 경고했다.

모든 재난을 한 데 모아놓은 듯한 아이티에 하나님이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셔서 이들에게 식량과 의료품들을 속히 공급해 주십시오. 아이티의 영혼들이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렸던 터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가족 잃은 남성 위로한 印 목회자 ‘강제 개종’ 혐의로 체포

인도 북부에서 코로나19로 아내, 아들, 며느리를 잃은 힌두교 남성을 위로하고 기도해준 목회자와 그의 아내가 이웃인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에게 ‘강제 개종’ 혐의로 구타를 당하고 체포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그러나 힌두교 남성은 하나님의 종들의 위로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고 함께한 주님의 종을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길 구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해가는 인도에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를 곳곳에 일으켜주시시오.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평등 가장한 역차별 우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에 이어, 올해 6월과 8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과 평등을 내건 법안 두 건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 등 법안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보도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 받으며, 종교적 신념으로 낙태 시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막아주셔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질서에 따라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법안을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에게도 진정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섬기는 직임을 기억해 정책을 추진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텍사스 법원, 종교 병원·의사에게 성전환 시술 강요는 종교자유회복법 위반 판결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종교 병원과 의사에게 환자의 성전환 시술을 강요한 미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종교자유회복법(RFRA)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리드 오크너 판사는 9일 ‘프랜시스칸 연맹 대 자비에 베라’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위임 규정”)이 기독교인 원고에게 벌금과 민사상 책임의 형태로, 성전환 절차와 낙태에 대한 보험혜택을 이행하고 제공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의료시설과 건강 보험 회사가 성전환 및 낙태 시술에 대한 지원과 의사의 시술을 의무화한 규정을 금지시켰다. 오크너 판사는 또 “종교자유회복법 위

반이 명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위협이 있는 한, 기독교인 원고에게 해당 종교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면제하는 영구금지명령은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5월 오바마 행정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지라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1557조를 발표했다. 당시 행정부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차별 규정을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포함시켰지만, 이 용어 중 어떤 것도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 민권법 상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다. 이 규정에 따라 많은 사설 보험 회사 및 고용주들이 성전환 치료를 지원하지 않을 시, ‘낙태 및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 규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종교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단체들은 규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6년 노스다코다 연방 법원은 이 규정을 보류시켰고, 2019년 텍사스 연방법원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이 명령을 폐지하는 새 규칙을 확정했지만, 일부 법원은 2016년 트랜스젠더 위임 규정의 일부를 복원하기 위해 움직였으며, 올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8월 30일 ~ 9월 18일

8월 30일 ~ 9월 4일 8.30(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8.30-9.3(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8.31(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9.2(21~23시) ▶ 경기 화성 / 예송센터(온라인,중)(박**)010-5541-4891, 9.3(10시)-4(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5교회 진행중.

9월 6일 ~ 9월 11일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강**)010-8786-1538,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9.6(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9.6-10(0-24시)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9.6-10(10-20시) ▶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9.9(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9.10(09-21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9교회 진행중.

9월 13일 ~ 9월 18일 9.13-17(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9.14-17(11~17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9.14-17(14~16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9.14, 16-18(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9.17(13-16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9.17-18(06-18시) ▶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6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탈레반에 점령당한 아프간... 8000여 명 기독교인 생명 위협

기독교 방송 채널, 매일 생명의 메시지 전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아프간 기독교인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급증할 것이라며 기독교인으로 판명될 경우, 살해 혹은 배신을 당하거나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15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20년 전 기독교로 개종한 하미드는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곧 없어질 것이다. 탈레반은 아프간의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라며 "20년 전에는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얼마 없었지만, 지금은 전국에 5000~8000여 명의 기독교인이 흩어져 있다."고 말했다. 하미드는 그러면서 "아프간 기독교 커뮤니티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북쪽 지역의 기독교 리더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겼으며, 이외에도 3개의 도시에 있는 신자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대개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이기 때문에 배교도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도 있다. 이에 하미드

는 "이슬람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죽음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외국인으로서 아프간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가명)도 탈레반의 잔혹성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그는 죄인을 처형하고, 채찍질하며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다시 시작됐으며 "그들은 쿠란뿐 아니라 하디스, 즉 이슬람 전통과 법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프간에는 하나님을 깊게 알고 싶어 하는 신앙적 욕구가 있다."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갖고 싶어 하고, 삶의 의미와 통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탈레반 장악 전부터 기독교 박해 증가

릴리즈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기 전부터 매년 증가해 왔다. 아프간은 지난 2004년 헌법에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규정돼 있어, 종교의 자유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사형이나 구금에 처



▲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카불 공항에 몰려든 아프간 주민들. 출처: 유튜브 채널 PBS NewsHour 캡처

할 수 있는 반개종범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들었다. 릴리즈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아프간을 탈출할 여유가 없으며,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이주하고 있지만 탈레반의 영향력이 커지는 파키스탄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탈레반, 휴대폰 검사해 성경 앱 있으면 사형

한편, 중동 기독교 위성 채널인 SAT-7은 "탈레반이 혼돈 속에 정

권을 잡은 후, 소망과 용기를 찾는 아프간인들의 상담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SAT-7 회장인 렉스 로저스 박사는 "신뢰할 만한 소식통은 '탈레반이 사람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만약 성경이 다운로드 돼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각 죽이고 있다.'고 전했다."며 "지금 휴대폰에 기독교에 관한 무언가를 남기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 탈레반은 어디에나 스파이와 정보요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 동료들을 찾는 일은 매우 위험하

기 때문에, 철저히 혼자이며 대화를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로저스 박사는 "많은 이들이 지하교회에 갈 정도로 대답하지 않다. 그들은 혼자이며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를 찾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전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 라디오로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 전달

세계복음연맹(WEA) 토마스 슈마허 사무총장은 "탈레반은 각종 범죄 수단, 특히 마약 거래 및 인신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자금을 조달 중"이라며 "이슬람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소녀들을 성노예로 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경은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그것과 함께 고통받는다'(고전 12:26)고 말한다. 지금 매우 암울한 순간을 맞고 있는 전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길 기도한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릴리즈 인터내셔널 역시 다리어와 파슈투어로 진행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희망, 생명, 위로의 메시지를 매일 전하고 있으며, 기독교 인쇄물과 디지털로 된 제자도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GPNEWS]



한국전 '추모의 벽' 워싱턴 D.C.에 세워진다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용사들을 기억하자" '추모의 벽' 건립모금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6.25전쟁 미군 참전 용사들과 한국 군인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되고 있다.

이 추모의 벽 건립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극동방송에 따르면, 6.25전쟁에서 전사한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이 시설은 지난 5월 21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작업이 진행 중이다. '추모의 벽'은 기억의 못으로 명명된 둘레 50m의 원형공간에 화강암 소재의 경사가 있는 높이 1m의 벽으로 세워진다. 이 벽면에는 미국 참전용사 3만 6574명과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스(KATUSA, 미군 배속 한국군) 한국 군인 72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다. 미국 내 전쟁기념시설에 외국군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카투사가 처음이다.

추모의 벽이 들어서는 공원은 미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한국전 참전 기념 시설로 당시 참전한 미군 19명이 전투대형으로 행군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 행군 모습은 1950년 12월 한국전에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 급히 후퇴하기 위해 흥남 부두로 향하는 철수작전인 장진호 전투 당시를 재현한 것이다. 이 전투는 당시 북한의 장진호에 포위돼 있던 미 10군단이 15일간 12만 명이 넘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철수했지만, 미 해병 4500여 명이 전사하고 7500여 명이 동상을 입은 미국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은 아픈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

보훈처 측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미국군과 한국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송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이라며 동참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측이 전했다.

이에 앞서 2016년 10월 미 상원에서 '추모의 벽 건립법'이 통과됐고 같은 해 11월 한국 국회에서도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예산 규모는 2200만 달러이며 대부분 미국과 한국 국민들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사 박선근 회장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젊은 나이에 목숨 바쳐 싸워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국민 10만 명이 1~2만 원씩 기부해주시기를 요청한



▲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진 동상. 제공: 극동방송

다."고 말했다.

극동방송은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8월 17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전국 생방송을 기획, 특별모금 '그 희생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모금방송에 참여한 청취자 중 어린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카투스 생존 군인인 최병수 씨는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을 위해 모금 생방송에 동참하며 눈물어린 동참의 마음을 전했다. 익산의 한 할머니는 북한

에서 6.25전쟁 시 직접 미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남한으로 피난을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모아 정성어린 모금액을 직접 들고 전북극동방송을 찾았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국전 참전용사는 통장의 전액을 전달하며 온 마음을 쏟았다.

이날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으로 전달된다. 문의: 02-320-0456. 후원계좌: 국민 032901-04-263711(재)극동방송.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60)

“모든 생물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교과서”… 교육 아닌 세뇌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을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모든 생물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이 아닌 세뇌이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밀러의 실험(Miller-Urey Experiment)’이 그 예다.

1950년대에 밀러와 유레이는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보고자 화학물질의 혼합물을 가지고 특수하게 제작한 유리관을 통과시켜 유기화합물을 얻고자 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없이 반복한 실험은 항상 실패였다. 교과서는 ‘생명의 시작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는 생명이 스스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이론에 대한 증거를 더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생명이 스스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더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들은 유리관 안에 메탄, 암모니아, 수소, 그리고 수증기의 혼합기

체를 넣고, 번개를 모방하기 위한 높은 전극 사이를 통과시켜 전기 방전을 걸었다. 이때 플라스크 바닥에 빨강고 끈적이는 화합물질이 생겼는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냈다. 왜냐하면 생성된 화합물질이 다시 전기를 통과하면 파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실험의 큰 문제는 그들이 산소를 제외한 환원적 대기로 실험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산소가 없는 대기를 주장했다. 그들은 산소가 있으면, 그들이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산화될 것을 알고 있었다. 살아있는 세포는 산소가 있으면 빨리 산화된다. 그래서 산소를 배제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 산소가 있으면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문제는 오존이 산소에서 만들어지고,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자외선은 암모니아를 파괴한다. 문제는 그가 택한 기체 중 하나가 암모니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도, 산소가 없어도 생명을 진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구에는 항상 산소가 있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있었다. 캐나다의

에리히 덤로스과 마이클 김벌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탄소, 황, 우라늄 등의 침전 분포에서 산소 없는 대기가 지구에 존재한 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초기 지구에 환원적 대기가 있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진화론자인 지질학자 클렘미와 벅험도 “가장 오래 되었다고 측정된 바위를 볼 때, 37억 년 전의 시간으로부터 지구의 산화적인 대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진화론자마저 지구에 항상 산소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밀러의 실험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방전으로 파괴될 것을 우려해 산물을 걸러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실험에서 생명체와 무관한 아미노산과 85%의 타르, 13%의 카르복시산을 만들어냈다. 타르와 카르복시산은 생명에 독이 된다. 만일 누군가가 독이 되는 98%의 물질과 나머지 2%의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만들어낸다면, 그가 생명 창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생명을 만드는 데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에서는 2개의 아미노산만 만들어졌다. 그나마도 그중 반은 원



© unsplash

손잡이이고 반은 오른손잡이 아미노산이었다. 미국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혼돈스러운 사실은 동물과 식물과 고등 유기체와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바이러스 등 단순 유기체에서 나온 모든 단백질들이 다 왼손잡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왼손잡이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중 반은 거꾸로 되어 있었다. 단백질을 만들려면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바른 방향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도 결합하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져 나가는 물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 발생은 물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며 생명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맞는 분자들을 같은 장소에 두고 에너지를 추가하면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안실에 있는 시체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살릴 수 없다. 생명은 다른 것이다. 과학으로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 [GPNEWS]

복음의 능력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어린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김을 받았기에 우리의 과거는 모두 영원히 우리 뒤로 사라졌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우리를 대적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다. “주여! 모세를 보내지 마소서. 그는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지 마소서. 저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가 두려웁습니다. 주여! 바울을 보내지 마소서. 그는 학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의 편지를 읽을 때 저는 왜소해집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오소서. 저는 주님이 두려워 않습니다. 주님은 양을 양 우리로 맞아들이듯이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리 중에서 주님을 만지려고 손을 뻗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GPNEWS]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선교 통신

부르키나파소 교회, 지하디스트 공격에도 그리스도 전하기 두려워하지 않아



▲ 부르키나파소 미셸 우에드라오고 목사.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소식지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부르키나파소의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8일에도 부르키나파소의 북부 사헬지역에서 지하디스트들의 공격으로 민간인 30명, 군인 14명, 민병대 3명 등 총 47명이 살해당했다. 공식 추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부르키나파소 북부 사헬 지역에서 이러한 공격과 공동체 간

폭력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사헬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종교적 관용을 버리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하디스트들은 반기독교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북부지역 일부에서는 크리스천들을 주요 공격 표적으로 삼고, 교회 문을 닫도록 압박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하나님의성회 교단 총회장 미셸 우에드라오고 목사는 “부르키나파소의 한 교회는 매우 활발하고 강한 교회지만 표적이 되었다.”라며 “지금도 사탄은 부르키나파소의 이 교회를 주시하고 모든 전략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막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했다.

미셸 목사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많은 교회들이 파괴됐다. 파괴되지 않은 교회들은 텅 빈 채로 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슬람 민병대들은 교회들, 크리스천들, 온전한 무슬림들을 표적으로 삼아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많은 마을에는 무슬림들의 무자비한 살해 때문에 크리스천이 없다. 그들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도륙하고 목을 베었다. 그것이 북부 지역 대부분의 마을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다.

이에 미셸 목사는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어도 교회 안은 비어있다.”며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머물게 되는 곳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게 될 곳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에 대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에 싫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 부르키나파소의 난민이 된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또

다른 적은 코로나바이러스”라며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경제적 제한조치들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다. 지역교회가 돕고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우리 형제들을 돕자.’고 말했고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었다. 옷, 신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놓았다.”고 했다.

미셸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난민이 된 형제자매들을 도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더해, 오픈도어의 긴급구호품이 부르키나파소의 난민 크리스천 수백 명에게 전달되었다.”며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어려운 시기, 죽음,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다. [G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선교완성을 위해 저에게도 할 일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기뻐요”

주님 만날 그 날을 사모하는 이근희 전도사(수지선한목자교회)



© 복음기도신문

이근희 전도사가 인터뷰 말미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자신이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심오하고 신비로운 어떤 큰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고백했다. 인생 끝자락에서 겨우 이것이 실제 되게 하셨지만 그래도 은혜라며, 주님 만나는 날에 불러드릴 찬양을 매일 연습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근희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께서 신앙의 첫 열매셨죠. 어머니가 2살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외할머니는 27살에 청상과부가 되셨어요. 홀로되신 외할머니는 긴 인생길을 이겨낼 힘을 절에서 얻으셨는지 절을 4개나 지으셨어요. 친가도 여승이 있을 만큼 양가가 불교에 대한 신앙이 강한 가운데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핍박이 오죽했겠어요. 어려운 순간들을 기도로 사셨던 것 같아요.”

- 어머니가 홀로 믿음을 지키시기 힘들셨겠네요.

“어머니는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늘 우리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이 켜죠. 엄마는 남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셨고 구령의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74세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는 저녁까지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예수 믿는 자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책망이 대단했어요. 정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저의 신앙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믿고, 착하게 살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자. 절대 하나님을 욕 먹이지 않도록 착하게 살자. 남을 도와주고 저주면서 살자. 기도할 때도 다른 건 못 구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지혜를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학교에 가면 무조건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점심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신학기가 되면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전도는 늘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군인과 결혼한 이후, 몇 년 밖에서 살다가 관사로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군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사병들을 만나게 됐어요. 많은 사병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은 아니었어요. 군인 신분이기엔 이런 저런 이유로 출석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전도하는 학생, 열심있는 집사로 신앙생활했으나...

- 일반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생활이네요. 사병들과 생활이 어떠셨어요?

“저희 같은 직업 군인들과 가족들은 민간교회를 다녀도 되지만, 전도하기 위해 군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에는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를 통해 전도활동을 했어요. 부침개, 초코파이, 빵, 믹스 커피 등 형제들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군인들은 전속이 잦은 편인데 가는 곳마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신우회 형제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도 가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했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 너무 뿌듯했어요. 그렇게 하늘나라 상급이 쌓일 것 같았어요.”

- 전도의 열매를 보셨으니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군 생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1996년도에 남편이 전역을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겁이 났어요. 주는 건 자신 있는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IMF사태도 만나고 5년 만에 실패했어요. 그전까지 아이들 키울 걱정에 돈 걱정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되지, 뭐 저렇게 돈돈돈 하나.’ 그런데 정작 제 손에 돈이 없어지니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되더군요. 그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태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어린 사람 한 명에게도 받을 뉘아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끊었어요. ‘난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도 걸지 마세요.’ 2년여 시간을 송장처럼 살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졸랐어요.



▲ 2014년, 복음선교관학교 아웃리치로 떠난 조지아에서 팀원들과 함께. 제공: WMM

사업 실패...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져

- 이렇게 큰 위기가 왔군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남편이 전역할 무렵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니 그 말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습관처럼 주님을 탓하던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저를 툭 건드리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를 위해 뭘 했느냐? 다네 의를 위해서 한 일들이지.’ 그동안 입이 굳어 기도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그렇게 2~3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힘이 다해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났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이름이 난 것은 맞았어요. 군 교회에서 이근희 집사하면 모르는 사

람이 없었거든요.”

-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였군요. 그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이거였나.’ 생각이 들면서 진리란 무엇일까 궁금해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그때 목사님이 신학교를 추천해주셔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알게 된 목사님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게 됐어요. 모든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주어진 규칙이나 교

살고, 바르게 행하면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황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학교에서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제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지은 큰 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 문제였어요. 엄마 말을 안 듣고 동생하고 싸우고 시샘도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하죠. 그리스도 인이니깐요. 모든 죄를 조금씩 짓고 사는 것은 인정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인정하고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것이지, 나에게 실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학교에서 들었던 존재적 죄인이라는 말이 그 어떤 것보다 충격적이었어요.”

- 자신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질문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제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복음의 진리에 나를 비추어 글을 작성해 나가면서 보게 됐어요. 말씀이 제 안을 비추이자 그제야 제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돌아보면 죄의 열매가 맺혔던 이유가 있었어요. 죄의 싹이 나올 때마다 끊어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 안에 죄의 씨가 있었어요. 이 씨가 박혀 있는 게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집사가 못 박혔다는 것이 저에게 실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말씀이 실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망의 문이 박살이 났구나. 사망이 주님을 가둘 힘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어요. 나를 가둘 사망의 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 같은 제 마음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제게 새로운 천지창조를 행하실 것 같은 기대가 생겼어요.” [GPN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pn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더 큰 죄, 더 큰 은혜 (4)

완성된 복음과 성령의 증거를 거절하는 더욱 큰 죄인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 약하게 복음의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새 언약 역시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 복음이 지식으로만 전해지지 않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내주하여 사실 수 있도록 복음을 완성하셨다. 앞서 말한 죄보다 더 큰 죄를 말하라면 오늘날 지금이 시대의 모습이다. 복음의 빛을 다 듣고 알면서도 그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신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6-27)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과

같은 복음의 황금시대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때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라고 하신다. 마음 중심으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완벽한 모든 증거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의 빛을 거절하고 등진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두려움인지 인간이 겪는 가장 잔악하고 어려운 일을 합친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혈통이나 인간의



일러스트=이예민

행위나 최선이 아니라 오직 어떤 눈물겨운 수고로도, 율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쳐

도 우리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한다. 믿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으로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삶 전 반을 진리로 조명해 보고 있는가. 종합검진 받듯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인가.’라고 점검을 해야 한다. 영적 당뇨, 영적 고혈압, 영적 심장병의 증세가 나타나도 오히려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모습이지는 않은가!

잘못하면 어떤 큰 죄인보다 더욱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음 앞에서 서고 나면 얼마나 소망이 없고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구나! 선한 자아는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매일 십자가이고 오직 믿음이구나! 0.00001%도 선한 것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악독한 저주받은 소망 없는 존재들이다.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 없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2018년 5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화선교사. LOG미션 대표)

단기 1,2년 선교사 모집
GC(Global Challenge) GA(Global Action)

지역지 : 남미, 로고스호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세례 후 6개월 이상 된 자

지원 마감	허입시험	허입면접	합격 발표
9월 24일(금)	10월 2일(목)	10월 12-15일(화-금)	10월 18일(월)

문의 : 031)698.2372

WWW.OM.ORG

JOIN US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버거데이
HEART MADE BURGERDAY

만남과 나눔을 요리하는 버거데이
건강한 샌드위치 주먹밥 과일 단체도시락

☎ 010-2207-2787 | 대구시 수성구 천호로 117

강원냉동 엔지니어링

취급품목 각종제빙기, 중대형냉장고, 쇼케이스, 슬러시기계
출장 A/S 및 상품 중고품 판매

대표이사 이병철 장로
☎ 033-744-2933 / 010-3856-4802
✉ gkcm119@naver.com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노방 전도하는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며 결단하다

최근 20대 청년들과 함께 노방 전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을 더욱 알아가던 가운데, 이번 전도는 내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초대로 다가왔다.

우리 팀의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행 13:52)였다.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했다. 전도를 나가기 전, 기도회를 통해 대구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복음의 씨가 깊이 뿌리 내려 기쁨이 넘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또 무엇보다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이 컸다.

전도를 할 때 목마른 영혼들에게 더욱 민감히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전도지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들이 있었다. 그럴 때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 복음을 궁금해하며 마음을 열

고 다가오는 영혼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그냥 고백하고 전도지를 주고 떠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목마른 영혼들에게 더

마지막으로 동대구역에 서 전도를 했다. 한 불교신자 할머니와 오랫동안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에 대해서도 들으며 불교의 윤회사상이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거리인지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에게 있는 불교에 대한 신념이 하나의 벽처럼 다가왔다. 그러면서 한국에 퍼진 여러 종교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며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했다. 한 시간 넘은 할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전도지를 드리고 자리를 떠났다. 복음의 씨앗은 심겨졌으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전도가 마무리되었다.

노방 전도를 통해 이렇게 자원하여 복음을 나누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힘이 되었다. 이 대구에 남은 나는 더욱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기에 전도를 계속 할 것을 결단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만 기대한다! [GPNEWS] 이지는



일러스트=고은선

다가갈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

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면 서 목소리를 높이시다가 나중에는 역으로 들어가서 애기를 깊게 나누게 되었다. 나는 복음을 나누고 또 할머니가 믿으신 불교의 사상

복음의 소리 316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구하려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Q 저는 쌍둥이인데, 쌍둥이를 부정시키는 잘못된 관습으로 한평생 가족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래도 되나요? 내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아픔이 많으셨군요. 왜 가족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입장과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을까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존재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내가 완전히 하나되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안에 들어온 죄를 내 힘으로 분리할 수 없을 뿐더러, 미워하고 혐오해야 할 죄를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도록 인간은 변질되었습니다. 죄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며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에게 속한 존재임을 철저히 드러냅니다(엡 2:1~3).

그래서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죄인을 먼저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토록 연기 원했던 행복과 기쁨은 외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존재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일을 완전하게 처리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부흥을 위하여

유니세프 등 코로나로 대북지원 어려워 '대북제재 면제' 연장 신청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 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유엔아동기금(UNICEF, 이하 유니세프)이 대북제재 면제를 받고 의료기기와 물 등을 북한으로 들여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원활동이 이뤄지지 못해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해 6월 초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지원활동에 필요한 물품 반입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다시 면제 연장 요청을 해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년 8월 5일까지 활동 기간을 늘려줬다.

유니세프는 당초, 수술이 필요한 산모를 위해 의료기기와 각종 보건, 영양 및 위생용품, 그리고 물 등을 북한으로 들여갈 계획이었으

나 지속적인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조달 및 운 영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유니세프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대북제재 면제 승

인을 받았지만 만료일이 다 돼 가도록 지원활동을 시작도 못했다. 이 같은 지원단체의 어려움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

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모든 외부지원 중단은 북한 당국의 자체 국경폐쇄조치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북

한이 이 제한조치를 해제하면 지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경 개방의 시 급성을 강조했다. [GPNEWS]

함경북도 폭우 피해 심각... 개인 소토지 작물 통째로 떠내려가



▲ 영양실조 치료를 받은 북한 어린이. 출처: 유니세프 캡처

북한 함경북도 여러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족한 식량에 보태기 위해 애써 농사지는 개인 소토지(뺨기밭) 작물이 통째로 떠내려가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함경북도 길주군의 한 소식통은 13일 “지난 10일 저녁 길주군에는 3시간가량 집중 호우가 쏟아져 남대천 쪽 밑에 30세대 가량의 단층집들

중 20세대 정도가 물에 잠겼다.”면서 “주민들은 급히 다리 위로 대피했으나 가재도 구나 물건은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남대천 마을에서 소토지농사를 하며 오두막살이를 하던 25명가량의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면서 “이곳에 모여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봄부터 여름 내내 가족 모두가 달라

붙어 소토지를 일구어 강변이와 콩 농사를 지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순식간에 큰 비가 내려 오두막은 무너지고 요즘 한창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 강냉이와 콩밭이 흙탕물과 토사에 뒤덮이고 떠내려가는 등 폐허처럼 되어 주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목놓아 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개인

소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은 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보도한 군 단위가 현재 3~4개로 봤을 때 한 개군을 20만 명으로 계산하고 그중 10퍼센트 인구가 수해를 입었다고 하면 6만 명 가량의 함경북도 주민이 수해를 입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G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하인리히 블룸막의 <새 물통(Bird Bath)>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독일 카셀의 북서부 지역에는 근사한 트레킹 코스가 있다. 블루 레이크라는 호수를 끼고 조성되었는데, 빼어난 자연경관 외에 이 코스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트레킹 코스를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갤러리나 조각공원의 작품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무덤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미술 행사 '카셀 도큐멘타'에 초청된 여러 미술가 중 헨리 크레머(Henry Kramer)는 이곳에 자신과 함께 묻힐 40인의 예술가들을 초청했다. 이 '예술가들의 무덤(The Artists Necropolis)'에 초청된 예술가 대부분은 카셀 도큐멘타에 참여한, 국제적인 명망 있는 작가들이었다. 크레머는 이들에게 그들의 무덤이 치열한 미술계에서 겪어 온 경쟁과 고통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작품이 되길 주문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제작된 무덤은 주

인의 명성과는 달리 아주 소박했고, 또 고요했다. 아직은 빈 무덤이지만, 팀 울리히(Timm Ulrichs)는 자기 두 발바닥만 짚힌 작은 판을 설치했고, 브랄라 홀만(Bialla Hallmann)은 A4 크기의 회화 한 점을 나무에 건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죽음에 화려한 장식을 더하지 않았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부를 떠나 인간 그 누구라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었다.

1997년 무덤이 '개장'했을 때, 기획자 크레머가 가장 먼저 자신의 무덤에 누웠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하인리히 블룸막(Heinrich Brummack)의 시신이 안치되었다.

블룸막의 작품은 작은 분수 같은 형태로, 제목은 <새 물통>이다. 비가 와서 무덤에 물이 고이면 새들이 날아와 물을 마시곤 한다. 소박하고 고요한 예술가들의 무덤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입을 가리고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인



▲ 작품설명: 하인리히 블룸막, <새 물통(Bird Bath)>, 1997

간의 유한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동시에 고통과 실패, 아픔과 좌절을 잊게 된다. 마치 "내가 땅의 기

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참담한 고통을 겪었던 욥마

저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고 한 것처럼. [GN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참 예배를 회복하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법'을 발미로,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통제하고 있다. 음악콘서트는 5000명을 허용하고, 전철, 버스는 자유롭게 하면서, 왜 그렇게도 교회 예배는 작심하고 19명까지로 정해놓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결국 망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늦게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과잉대응을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다시 전과 같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예배 회복 운동'이 여러 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비록 처음부터 정부의 예배 통제에 항거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 회복운동은 뒷북을 치는 일이다. 그래도 뒷북이라도 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전과 같이 예배를 다시 드리자는 캠페인은 생각해 볼 점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그토록 생명보다 귀하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생명 걸고 예배를 사수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정부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 탄압의 방법으로 교회와 예

배가 발가벗긴 상태에서 그냥 예배회복운동만으로는 안 된다.

예배는 종교행사도 아니고, 콘서트는 더욱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톨릭의 미사와 전혀 다르다. 예배는 종교행사가 아니다. 예배는 콘서트다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예배는 성경적이고,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한참 멀어진 매우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이교적 예배가 많았음을 반성해야 한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대개는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청중의 입맛에 맞고, 감성에 맞고,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회 개혁자 요한 칼빈(J. Calvin)은 500년 전에 "목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야망(Emvision)이다."라고 했다. 교회성장의 꿈은 좋으나 그것이 목사 개인의 야망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 성경적, 비 복음적, 비 교리적인 것이라도 목사의 야망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목회란, 목사 개인의 헛된 욕망과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수가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겠다는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 unsplash

예배 회복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정부가 대면예배를 허용한다는 명령을 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허용한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 회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대로의 예배'이다. 또한 교리적으로 맞는 예배회복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그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다. 그런데 영은 옛 번역대로 대문자 'Spirit(스피릿)'으로써 일반적인 영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이시다. 곧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진리란, 헬라어로 'ἀλήθεια(알레세이아)'인데, '허구(Fiction)'의 반대어이다. 그

러므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시리라는 구속사적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드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다.

예배 없이 구원 없고, 예배 없이 교회 없고, 예배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예배회복은 전과 같이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영망진창이 되고,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예배의 형태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성경 중심'의 예배로, '개혁교회의 예배' 원리를 회복해야 하리라고 본다. 참 예배 회복은 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 목사가 참 목사가 되는데서 출발한다. [GNNEWS]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구독신청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7. 29 ~ 8. 18 (가나다 순)

개인

고은영 권순호 권혜령 김다경 김명순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유남 김정희 김지영 김형숙 노은옥 박경희 박민숙 박신희 신은혜 안민자 안수경 양애숙 오세주 윤경석 은종숙 이복순 이영미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준진 이진희 이희순 정금자 조재희 조형광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점목 최정미 최정숙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마중물감리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사관학교 산한복자교회 오에그교회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열방참사랑교회 주나임교회 주소망교회 주만교회 토론토한침례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D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